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염동문** · 조혜정***

초 록

최근 청소년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경험은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울, 자살생각 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성폭력을 경험하더라도 보호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정신건강문제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요인 중 내적 보호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살펴보고, 자아존중감이 우울 및 자살생각의 위험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검증되어왔다. 이 연구는 성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을 통한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응답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6,29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SPSS Macro를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성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는 자아존중감이 증가할수록 감소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우울이 증가하고, 우울이 증가하면 자살생각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매개효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청소년을 위한 실천적 및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성폭력 피해경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 조절된 매개효과

*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1저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 chc@gntech.ac.kr

I. 서론

성범죄가 성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재인식하게 된 사건 중 하나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사건이다. 텔레그램의 n번방과 박사방을 개설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의 일부, 그리고 피해자의 60% 이상이 청소년이었다(경향신문, 2020. 5. 28).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은 초등학교(62.4%)가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 성추행, 사이버성폭력, 성폭행의 피해율은 중·고등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7).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 중 2015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범죄는 성폭력으로, 무려 101.8%의 증가율을 보였다(교육뉴스방송, 2019. 9. 25). 청소년 성폭력 문제에서 주목할 점은 성매매 강요 가해자의 평균연령이 19.5세(2014년)에서 18.3세(2018년)로 점점 저연령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김지선, 김민영, 한민경, 조병철, 2019: 43). 이에 따라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2009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을 통해 성보호 대상을 확대해왔지만, 청소년의 성폭력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

서구에서는 1970년대부터 성폭력 피해 후유증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국내의 경우 2000년 이후 성폭력으로 인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김혜원, 장명심, 2004)가 보고되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이 흔하게 경험하는 성폭력 피해 유형은 성희롱이었으며, 거의 모든 유형의 성폭력 피해경험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김혜원, 장명심, 2004; 차주환 외, 2019). 청소년 성폭력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정신적 피해(65.8~82.6%)이지만, 신체 및 물리적 피해를 동반하는 비율도 낮지 않았다(김지선 외, 2019). 성폭력 피해경험은 장기간의 후유증을 남기고 심리사회적 발달의 저해를 초래한다. 또한 우울 및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자살생각 및 행동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Stein et al., 2010). 특히 성폭력 피해경험은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 및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rgen, Martin, Richardson, Alison & Roeger, 2003; Sigfusdottir, Asgeirsdottir, Gudjonsson & Sigurdsson, 2007), 정신건강 문제 간의 구조적인 관계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 일부로 성폭력을 부수적으로 다루거나(이용택, 이은경, 2016; 심혜인, 김동현, 박대경, 2020), 일부 지역 또는 연령층(Bergen et al., 2003;

Sigfusdottir et al., 2007; 김재엽, 황성걸, 2017; 김혜원, 장명심, 2004)에 국한하여 그 현상을 다루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폭넓게 조사한 인권실태조사를 활용하고자 하며, 폭력 유형 중 성폭력 피해경험에 초점을 두고 우울,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한편 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로 인해 우울 및 자살생각 등 심각한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보호요인에 의해 회복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회복을 촉진하는 보호요인으로 가족과 주변의 관심, 상담·의료·법률 지원,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능력 등 다양하게 보고(차주환 외, 2019)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러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우울 및 자살의 위험을 낮추는 보호요인(Mann, Hosman, Schaalma & De Vries, 2004; 신혜정, 정익중, 이상아, 이향연, 박재연, 2014; 홍세희, 노언경, 정송, 2016)으로 밝혀져 왔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증가된 우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자아존중감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여 보호요인(이웅택, 이은경, 2016)으로 검증된 바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는 주목하고 있는 반면에 보호요인을 검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보호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성폭력 피해경험으로 인한 우울 및 자살생각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변화와 함께 성행동 및 관심이 급증하는 시기로 건강한 정체성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시기에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경험은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의 개념은 법적, 학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범죄행위인 성폭력과 민사상 불법행위인 성희롱을 구분하여 형법상 범죄행위를 성폭력으로 정의하

는 경우도 있으나¹⁾,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성희롱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최근 온라인상에서 언어적 성희롱의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교육부, 2019; 차주환 외, 2019).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을 강간이나 추행, 성매매 이외에도 성희롱을 포함하여 성을 매개로 한 모든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 경험 비율은 1.3%로, 2013년 이후 감소했으나 2018년 증가하였다(교육부, 2018). 또한,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안 심의는 2012년 642건에서 2015년 1,842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교육부, 2017). 성희롱은 초등학교(62.4%)이 중고등학교(48~49.4%)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성추행, 사이버성폭력, 성폭행은 중·고등학교에서 그 피해비율이 높아 연령집단이 높을수록 성폭력 피해가 심각하였다(교육부, 2017). 청소년의 경우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보다 또래 가해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김기현, 이미정, 이인성, 유비, 2014). 또한 성폭력 피해가 술, 약물 등을 한 상태에서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도 많았다(김기현 외, 2014). 성폭력 피해의 중심현상을 살펴보면, 이들은 심한 좌절감과 무기력, 자살 시도, 폭력피해 기억으로 인한 고통과 혼란을 경험하였으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탓을 돌리면서 스스로를 벌하거나 괴롭히고 있었다. 또한 사회에서 매장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타인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 등의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권해수, 2007).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해온 전문가들의 진술에서도 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 이후 자해, 자살시도 등의 자기파괴적 행동을 보이며, 자신의 피해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자기책임감을 느껴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성폭력피해 사실이 노출될 경우 더러운 아이라는 또래로부터의 낙인과 편견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이들에게 이차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강석영, 김래선, 류다정, 2016).

이처럼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불안에서부터 자살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피해의 깊이를 추정하기 힘들 만큼 심각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실시한 21개

1)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아동복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성폭력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교육부, 2019). 그러나, 본 연구는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성적인 놀림(성희롱)을 포함하여 성폭력을 정의하였다.

국 세계정신건강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폭력이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위험요인이었다(Stein et al., 2010). 성폭력 피해경험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였으며(김재엽, 황성결, 2017), 성추행 피해경험은 우울, 자살생각, 자살계획에 공통적인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신혜정 외, 2014). 특히 우울은 자살생각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신혜정 외, 2014)으로, 성폭력 피해경험은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rgen et al., 2003; Sigfusdottir et al., 2007).

2. 정신건강 보호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인지적 및 정서적 가치평가로서 타자에 의해 영향을 받아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수용으로 나타난다. 소시오미터 이론(Sociometer theory)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을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준거집단에서의 수용과 배제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정의하고 있다(Leary, Schreindorfer & Haupt, 1995). 즉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인정, 평판 등의 영향을 받으며, 타자는 자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환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 및 성적 발달을 토대로 자아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는 시기로, 중요한 타자는 자아존중감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사회문화적으로 잘못된 형성되어온 성 인식과 문화로 인해 자신에 대한 수치감, 도덕적 결함과 같은 인지왜곡이 극대화될 경우 자신을 부정하거나, 타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며 깊은 무력감과 좌절, 우울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주소희, 2010).

그러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 모두 정신건강 문제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위기 상황에서도 보호요인이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따라 성폭력 피해 후 회복 차이를 보일 수 있다(권해수, 2007).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완충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정서조절능력, 가족과 주변의 관심, 상담·의료·법률 지원, 등 다양하게 보고(차주환 외, 2019)하고 있다. 이 중 자아존중감은 성폭력 피해경험으로부터 회복을 촉진시키는 요인이며(Moran & Eckenrode, 1992; 차주환 외, 2019:2 재인용),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 우울 및 자살행동을 감소시키는 개인 내적 보호요인이기도 하다(Mann et al., 2004; 신혜정 외, 2014).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청소년 자살생각과 관련된 메타분석 연구에서 자아존

중감,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교사지지, 친구애착이 보호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이중 자아존중감의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홍세희 외, 2016).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재연, 2009; 장신재, 김희수, 2019).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증가된 우울이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더라도 자아존중감에 의해 완충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였다(이웅택, 이은경, 2016).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완충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모형을 개념적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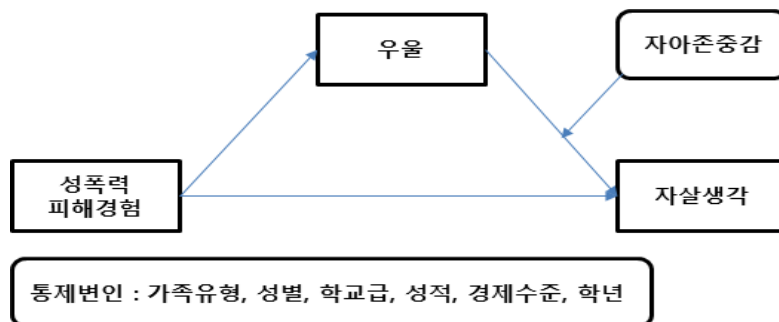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개념적 모형)

2. 분석자료

분석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이다. 전체 조사대상자인 9,008명 중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모형에 포함된 성폭력 피해경험, 우울, 자살생각, 자아존중감, 통제변인에서 결측이 있는 대상을 제외한 6,298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1)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조사 항목 중 “최근 1년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를 사용하였다. 응답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0’, ‘가끔 생각한다=1’, ‘자주 생각한다=2’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 수준이 더 심각함을 의미한다.

2) 성폭력 피해경험

성폭력 피해경험은 “최근 1년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를 사용하였다. 응답은 ‘경험 없음=0’, ‘경험 있음=1’로 구성되어 있다.

3) 우울

우울은 3개 문항인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우울의 신뢰도(Chronbach's α)는 .901이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의 총 4문항의 리커트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역문항 처리후 평균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Chronbach's α)는 .825이다.

5)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가족유형, 성별, 학교급, 성적, 가정의 경제수준, 학년을 선정하였다. 가족유형(양부모 가정=1, 기타=0), 성별(남자=1, 여자=0), 학교급 (고등학교=1, 중학교=0)은 더미변수 처리하였고, 성적은 5점 척도(1=매우 못하는 수준, 5=매우 잘하는 수준)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경제수준은 7점 척도(1=매우 못 산다, 7=매우 잘 산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년은 중1에서 고3까지 연속변수로 처리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3.0과 SPSS PROCESS 3.4.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은 3단계로 실시하였다. 첫째,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성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둘째,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료를 평균중심화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절효과의 크기는 Cohen(1992)의 공식을 사용하여 살펴보았으며, 이 때, 통계적 검정력은 G*Power 3.1.9.7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의수준 .05에서 계산하였다. 끝으로 성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을 경유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자아존중감에 의하여 조절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는 예측변수(predictor)가 매개변수(mediator)를 통해 준거변수(out-come)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간접효과, indirect effect)가 조절변수(moderator)의 값에 따라(conditional) 달라지는 것으로, 이를 조건부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라고 한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모든 검증은 유의수준 .05에서 실시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은 5,000회를 지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1). 가족유형은 양부모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성별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았다. 자살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으며(53.1%), 성폭력 피해경험은 3.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2). 자살생각에 대해 성폭력 피해경험($r=.155$, $p<.001$)과 우울($r=.458$, $p<.001$)은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자아존중감($r=-.311$, $p<.001$)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성폭력 피해경험($r=-.062$, $p<.001$) 및 우울($r=-.309$, $p<.001$)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우울과 성폭력 피해경험은 정적 상관($r=.119$, $p<.001$)을 보였다. 성폭력 피해경험, 우울, 자아존중감 변수간의 상관계수가 크지 않아서 자살생각에 대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관계수의 값이 낮음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많은 표본수에 의한 영향일 수 있다.

표 1
기술통계

변수	구분	명	%	변수	구분	명	%
가족 유형	기타	606	9.6	성별	여자	2,953	46.9
	양부모	5,692	90.4		남자	3,345	53.1
학교급	중학교	2,748	43.6	자살생각	없음	4247	67.42
	고등학교	3,550	56.4		있음	2052	32.57
학년	중1	934	14.8	성폭력 피해경험	없음	6,101	96.9
	중2	910	14.4		있음	197	3.1
	중3	904	14.4	우울	최소=1, 최대=4, M=2.043		
	고1	1,144	18.2	자아존중감	최소=1, 최대=4, M=2.988		
	고2	1,215	19.3	성적	최소=1, 최대=5, M=2.980		
	고3	1,191	18.9	경제수준	최소=1, 최대=7, M=4.540		

표 2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성폭력 피해경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
성폭력 피해경험	-			
우울	.119***	-		
자아존중감	-.062***	-.309***	-	
자살생각	.155***	.458***	-.311***	-

*** $p < .001$

2. 모형분석

1)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우울의 매개효과

준거 변수		예측변수	b	se	β	t	F	R ²
자살 생각	통제 변수	가족유형	-.057	.024	-.030	-2.412*	69.064***	.071
		성별	-.206	.014	-.183	-15.016***		
		학교급	-.089	.029	-.078	-3.067**		
		성적	-.024	.007	-.043	-3.433***		
		경제수준	-.036	.007	-.067	-5.212***		
		학년	.025	.008	.076	2.976**		
		성폭력 피해경험(C)	.472	.039	.840	12.018***		
우울	통제 변수	가족유형	-.062	.037	-.020	-1.698	138.862***	.134
		성별	-.528	.021	-.292	-24.748***		
		학교급	-.124	.045	-.068	-2.777**		

준거 변수	예측변수	b	se	β	t	F	R ²	
자살 생각	성적	-.027	.011	-.031	-2.551*	231.987***	.228	
	경제수준	-.070	.011	-.081	-6.547***			
	학년	.093	.013	.177	7.154***			
	성폭력 피해경험(a)	.564	.061	.625	9.262***			
	가족유형	-.040	.021	-.021	-1.880			
	성별	-.067	.013	-.059	-5.084***			
	통제 변수	학교급	-.056	.026	-.049			-2.112*
	성적	-.017	.006	-.030	-2.616**			
	경제수준	-.017	.006	-.032	-2.758**			
	학년	.000	.008	.001	.043			
성폭력 피해경험(C)	.323	.036	.574	8.949***				
우울(b)	.264	.007	.425	35.701***				

* $p < .05$. ** $p < .01$, *** $p < .001$

성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전체효과(c)는 .472($p < .001$)로 나타나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피해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a)는 .564($p < .001$)로 나타나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높았다. 성폭력 피해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b)는 .264($p < .001$)로 나타났다.

매개변수 효과를 고려했을 경우 성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효과(c')는 .323($p < .001$)로,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 성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쳤던 전체효과($c = .472$)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우울은 성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 계수는 .149($= .564 \times .264$)였다. 이 간접효과에 대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한 결과(표 4), 매개효과 계수의 하상한값은 각각 .116과

.182으로 0의 값을 포함하지 않아, 우울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성폭력 피해경험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모형을 지지하였다.

표 4

우울의 매개효과의 부트스트래핑 결과

변수	매개효과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우울	.149	.017	.116	.182

2)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존중감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표 5), 상호작용항 투입은 .017의 R^2 변화량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Cohen(1992)의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조절효과 크기를 나타내는 f^2 는 .023으로, Cohen의 효과크기 판단기준²⁾에 의하면 작은 효과크기를 가지며, 이때 검정력은 .99로 나타났다.

표 5

자살생각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예측변수		준거변수 : 자살생각			R^2	ΔR^2
		b	se	t		
통제변수	가족유형	-.036	.021	-1.730	.264	.017***
	성별	-.060	.013	-4.689***		
	학교급	-.062	.026	-2.407*		
	성적	.001	.006	.224		

2) Cohen은 효과크기의 판단기준 값(f^2)을 0.02(작음), 0.15(보통), 0.35(크다)로 제시하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사회과학분야 연구에서 조절효과의 크기는 .01 ~ .05로 작게 나타난다.

예측변수	준거변수 : 자살생각			F	R ²	△R ²
	b	se	t			
경제수준	-.003	.006	-.467			
학년	.002	.008	.245			
우울	.229	.008	30.446***			
자아존중감	-.157	.009	-16.595***			
우울×자아존중감	-.108	.009	-11.936***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우울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 수준이 높아지면 자살생각이 높아지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자살생각의 변화량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은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조절효과가 유의하다는 의미는 예측변수의 준거변수에 대한 효과가 조절변수 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범주형이 아닌 연속형 점수로 측정된 조절변수의 어느 범위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에 관한 설명을 위해 많은 선행연구에서 Aiken과 West(1991)이 제시한 조절변수의 특정한 값인 평균값과 평균값 ± 1 표준편차에서 상호작용효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PROCESS에서 제공하는 Johnson-Neyman 방법을 적용하여 자아존중감의 특정값이 아닌 전체 범위에서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그림 3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의 모든 범위에서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는 95% 신뢰수준의 하한과 상한값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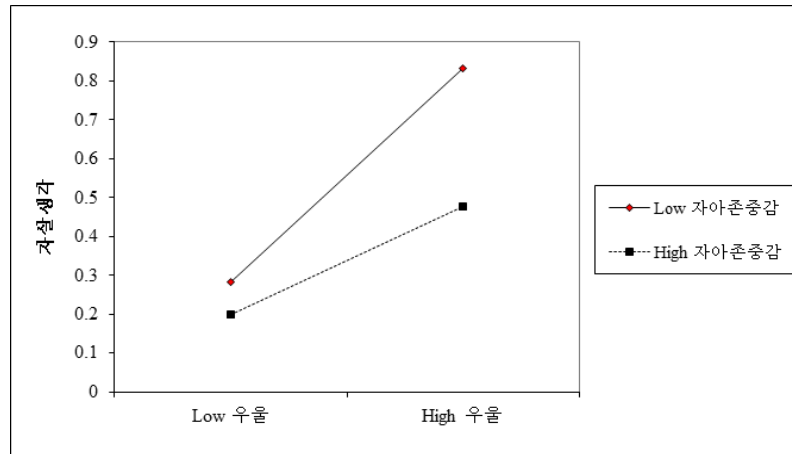


그림 2. 자살생각에 대한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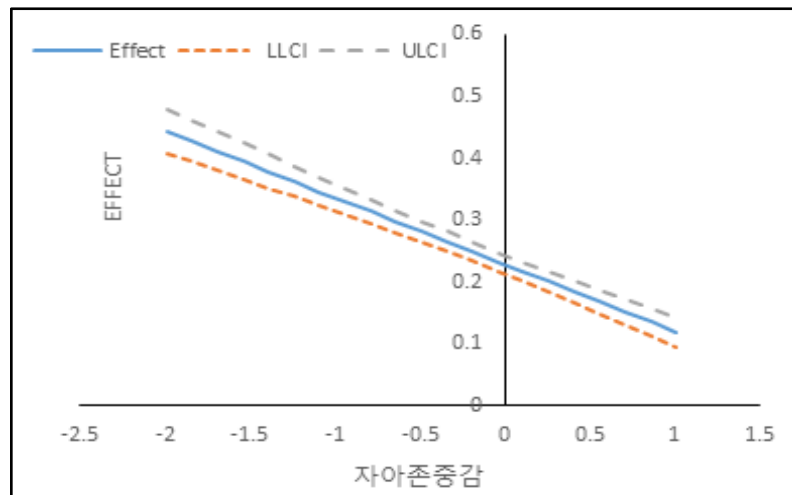


그림 3. 자아존중감에 따른 우울의 자살생각에 대한 효과의 신뢰밴드

3) 조절된 매개효과

앞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여기서는 이 두 가지 효과를 결합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통제변수의 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직접효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폭력 피해경험은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a_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b_1)은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c_1')과 우울 $\times$ 자아존중감(b_3)은 자살생각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조절된 매개효과분석의 직접효과

예측변수	준거변수 : 우울			준거변수 : 자살생각		
	b	S.E.	t	b	S.E.	t
성폭력 피해경험(a_1)	.564	.061	9.262***	.302	.035	8.625***
우울(b_1)				.222	.008	29.581***
자아존중감(c_1')				-.154	.009	-16.458***
우울 $\times$ 자아존중감(b_3)				-.107	.009	-11.865***

*** $p < .001$

주 1. 통제변수(가족유형, 성별, 학교급, 성적, 가정의 경제수준, 학년)를 투입한 이후 결과.

조건부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 조절된 매개효과)에 따라 성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ω)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Hayes, 2018).

$$\begin{aligned}\omega &= a_1(b_1 + b_3 W) \quad (W \text{는 조절 변수}) \\ &= .564(.222 - .107 \times \text{자아존중감})\end{aligned}$$

이는 자아존중감 변수의 크기가 커질수록 성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며, 조절된 매개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조건부 간접효과인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의 평균값(0)과 평균값 ± 1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조건부 값에 따른 간접효과의 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의 값이 증가하면 조건부간접효과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신뢰구간 내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 유의하였다. 즉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우울이 증가하고, 우울이 증가하면 자살생각이 증

가하는데, 이러한 매개효과는 자아존중감의 크기가 커질수록(조절효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그러므로 연구방법의 연구모형에서 제시했던 개념적 모형을 모든 경로를 표시하는 통계적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표 7

자아존중감 값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분석의 간접효과

자아존중감	조절변수의 특정 값에서의 조건부 간접효과			
	Boot 간접효과	Boot 표준오차	Boot LLCI	Boot ULCI
-1SD(-.701)	.168	.019	.131	.206
평균값(0)	.125	.014	.098	.154
+1SD(.701)	.083	.011	.063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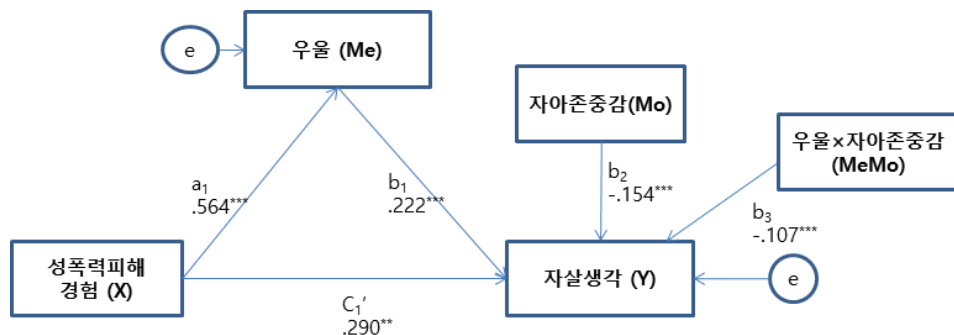


그림 4. 조절된 매개효과(통계적 모형)³⁾

3)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perspective*(2nd Ed) 참고하여 제시함.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대상자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피해경험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쳐 부분매개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Bergen et al., 2003; Sigfusdottir et al., 2007)와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연구결과(이용택, 이은경, 2016)를 지지한다. 성희롱부터 성추행, 성폭행을 경험한 피해 청소년들이 무서움, 플래시백, 우울, 자살생각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연구결과(김혜원, 장명심, 2004; 차주환 외, 2019)를 뒷받침한다. 이는 성폭력 피해 이후 외상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우울을 호소하거나 자살생각을 보이는 청소년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우울은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의 보호요인인 반면에, 낮은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Mann et al., 2004; Leary et al., 1995)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이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측면의 명시적 자아존중감과 정서적 측면의 암묵적 자아존중감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손상된 자아존중감을 지닐 가능성이 높고 이는 우울, 무력감, 자살생각의 동시 예측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Greemers, Scholte, Engels, Prinstein & Wiers, 2012). 따라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지적 대처와 정서적 안정화를 통해 외상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이후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 발견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회복해나갈 수 있도록 단계별 상담개입이 필요하다(차주환 외, 2019).

셋째, 성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그 효과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살생각의 보호요인으로 밝힌 연구(홍세희 외, 2016),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이용택, 이은경, 2016)를 지지한다. 본 연구결과는 성폭력 피해로 인해 우울수준이 높아

지더라도,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위기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Leary 등(1995)은 자아존중감에 있어 타자와의 신뢰관계 속에 수용받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강석영 외, 2016; 차주환 외, 2019),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상담자, 부모 등이 공감적 태도를 보일 때 그리고 지지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할 때 정서적으로 안정화를 경험하였고, 상담을 통해 외상에 대처하거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절차적 배려, 공감적인 상담자의 태도는 성폭력 피해로 인해 혼돈스러운 심리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가 외부로 알려져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낙인과 이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증거확보의 어려움으로 법적 문제를 경험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부적절한 부모 태도 등은 성폭력 피해 신고와 도움요청을 지연시키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차주환 외, 2019). 따라서 실천현장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중심의 위기개입과 충분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며, 청소년, 부모, 교사 및 학교, 유관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피해자들이 위기대응체계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성폭력 피해경험에 주목하여 우울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완충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 회복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전국 단위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나 성폭력 피해경험 및 자살생각 문항이 각각 한 문항으로 조사되어 매우 제한적인 경험만을 다룰 수밖에 없었다. 향후에는 성폭력피해 경험의 다양한 측면과 타당성이 확보된 자살생각 척도를 활용한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에 사용된 PROCESS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어려워, 자살생각은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자살생각의 스케일을 확대하여 재분석하거나,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방법으로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 총점으로 분석하였으나, 향후에는 자아존중감의 다양한 측면(명시적/암묵적 자아존중감)을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 이외에도 다양한 보호요인을 탐색하여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석영, 김래선, 류다정 (2016). 현장 전문가들이 인식한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특성과 개입방안. **청소년상담연구**, 24(2), 171-199.
- 경향신문 (2020. 5. 28). 'n번방, 박사방' 등 피해자 60% 이상 10대 청소년..경찰, 소지자 추적 연말까지. http://news.khan.co.kr/kh_news에서 2020년 8월 3일 인출.
- 교육뉴스방송 (2019. 9. 25). 학교폭력 중 성폭력 검거인원 101.8% 증가. <http://www.enb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17417>에서 2020년 8월 3일 인출.
- 교육부 (2017). **학교 내 성폭력 예방대책**. <https://www.moe.go.kr/main.do>에서 2020년 8월 4일 인출.
- 교육부 (2018).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https://www.moe.go.kr/main.do>에서 2020년 8월 20일 인출.
- 교육부 (2019). **학교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매뉴얼**. 세종: 교육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https://www.law.go.kr>에서 2020년 8월 20일 인출.
- 권해수 (2007).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경험.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13(4), 53-82.
- 김기현, 이미정, 이인성, 유비 (2014). 또래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피해자 지원체계 경험 연구. **피해자학연구**, 22(2), 5-35.
- 김재엽, 황성결 (2017). 여자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 부모-자녀 간 TSL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9(4), 75-97.
- 김지선, 김민영, 한민경, 조병철 (201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분석**. 서울: 여성가족부.
- 김혜원, 장명심 (2004). 청소년들의 교내 성폭력 경험과 정신건강의 관계: 성별에 따른 비교. **미래청소년학회지**, 1(1), 125-149.
- 박재연 (2009).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구조적 관계 검증: 보호요인으로서 자이존증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16(10), 249-272.
- 신혜정, 정익중, 이상아, 이향연, 박재연 (2014). 청소년의 우울,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사회복지**, 27, 25-50.

- 삼혜원, 김동현, 곽대경 (2020).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우울,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부모 방임수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범죄학**, 14(1), 101-121.
- 이웅택, 이은경 (2016).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우울,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48, 62-85.
- 장신재, 김희수 (2019). 청소년 우울·불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3, 169-191.
- 주소희 (2010). 이동청소년기에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생존자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2, 33-68.
- 차주환, 소수연, 최지영, 이태영, 이지은, 장혜미 (2019). **성폭력 피해 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 개발**.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홍세희, 노연경, 정송 (2016).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보호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조사연구**, 17(1), 137-166.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Bergen, H. A., Martin, G., Richardson, A. S., Allison, S. & Roeger, L. (2003). Sexual abuse and suicidal behavior: A model constructed from a large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1), 1301-1309.
-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55-159.
- Creemers, D., Scholte, R., Engels, R., & Prinstein, M. J. & Wiers, R. W. (2012).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as concurrent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depressive symptoms, and loneliness.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3, 638-646.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perspective*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eary, M. R., Schreindorfer, L. S. & Haupt, A. (1995). The role of low self-esteem i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Why is low self-esteem dysfunctional?.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4(3), 297-314.

- Mann, M., Hosman, C. M. H., Schaalma, H. P. & De Vries, N. K. (2004). Self-esteem in a broad-spectrum approach for mental health promotion. *Health Education Research*, 19(4), 357-372.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Sigfusdottir, I. D., Asgeirsdottir, B. B., Gudjonsson, G. H. & Sigurdsson, J. F. (2007). A model of sexual abuse's effects on suicidal behavior and delinquency: The role of emotions as mediating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 699-712.
- Stein, D. J., Chiu, W. T., Hwang, I., Kessler, R. C., Sampson, N., Alonso, J., Borges, G., Bromet, E., Bruffaerts, R., Girolamo, G., Florescu, S., Gureje, O., He, Y., Kovess-Masfety, W., Levinson, D., Matschinger, H., Mneimneh, S., Nakamura, Y., Ormel, J., Posada-Villa, J., Sagar, R., Scott, K. M., Tomov, T., Viana, M. C., Williams, D. R. & Nock, M. K. (2010). Cross-national analysis of the associations between traumatic events and suicidal behavior: Findings from the WHO World Mental Health Surveys, *PloS one*, 5(5), e10574.

ABSTRACT

The effects of adolescents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and the relationship to suicidal ideation: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Yeum Dongmoon* · Cho Hyech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6,29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responded to the 2017 Korean Survey on the Rights of Youth and Children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depress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and suicidal ideation. Secondly, self-esteem had a moderating effect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Thirdly,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by means of the SPSS Macro tool, self-esteem was shown to have moderated the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between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and suicidal ideation. This research concludes with a discussion and analysis of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Key Words: adolescent,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depression, self-esteem, suicidal ideation, moderated mediating effect

투고일: 2020. 8. 14, 심사일: 2020. 11. 12, 심사완료일: 2020. 11. 24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angshin Univ., Professor.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yeongnam Science and Technology National Univ., Professor.